아시아리뷰 제11권 제3호(통권 23호), 2021: 323~335 https://doi.org/10.24987/SNUACAR.2021.12.11.3.323

열림[開]과 닫힘[塞]의 변주곡, 경계의 공간을 넘나들다

송진 지음, 『중국 고대 경계와 그 출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을 읽고

김진우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연구교수

I. 들어가며

근대 국민국가에서 정치적 통합의 결과물인 영토는 정치·지리적인 경계로 획정되는 국경선으로 가시화되어 구체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국경선은 정치적인 근대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20세기 후반 이래 탈냉전, 탈근대의 흐름 속에서 21세기에는 근대 국가와 민족의 닫힌 경계를 넘어 탈경계, 탈국경을 이야기하는 국제화와 지역화가 지배적인 사조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2020년 이래 지금도 현재진행 중인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개인과 개인 간의 봉쇄와 격리를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규모로 일상화시키면서 세계는 다시 닫히고 막혀 가고 있다. 그리고 막히고 닫히는 경계 너머의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물리적인 공간의 단절을 가져왔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들은 정보통신과 가상의 공간에서 경계를 급속하게 허물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열려 있는 만남과 융합을 가속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닫힘과 열림의 역설적인 변주가 앞으로 인류사회를 어떻게 변모시킬지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는 분명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불가측의 시대 상황에 직면해서, 열림과 닫힘의 시각으로 중국 고대 경계와 출입의 문제에 천착한 본서는 공교롭

www.kci.go.kr

게도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재적인 시사점을 준다고도 할 수 있다.

본서는 중국 고대 국가 형성과정에 나타난 공간 지배의 원리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점인 경계와 그 경계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경계가 열림과 닫힘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지점이며, 따라서 그 열림과 담힘의 정도에 따라 한 사회의 다른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인식을, 또 정치 권력의 공간 지배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경계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계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이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의 관점에서 저자는 중국 고대 시대별 경계의 존재 형태 및 그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의 이동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상주시대부터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한시대까지 각 시대별 경계의 형태와 출입 사례를 분석해서, 각각 어떤 원리로 경계가 만들어지고 출입 절차가 규정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열림과 담힘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중국 고대 사회의 타계(他界)·타자(他者)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신성한 공간으로의 경계와 통과의례

중국 고대 초기국가 단계에 해당하는 상주(商周)시대의 경계 출입과 통과의례의 문제는 본서 제2장에서 다루고 있다. 상주시대의 군주는 주술과 제의에 근거하는 사제의 성격을 가지면서, 배타적인 지배 공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리상의 경계의식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특정할 수 없는 상주시대 경계의 존재 형태와 성격을 당시 경계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왕래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공간의 한 지점을 특정해서 그 경계점을 통과할 때의 절차가 가지는 특징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면, 명확한 정계(定界)가 존재하지 않는 상주시기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상대(商代)는 상읍(商邑)을 중심으로 상왕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사람을 파견하는 등 상(商)과 긴밀히 연결된 거점의 연결망으로 정치적 권역이 형성되어

www.kci.go.kr

있었다. 상읍은 상 왕실의 구성원들이 의례나 주요 활동을 하는 여러 거점 중 하나였고, 상읍에서 종묘는 상 왕실의 정치적 핵심 공간이자 신과 소통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바로 그 신성한 종묘로 들어가는 정남쪽의 대문은 단순한 출입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즉 신을 맞이하여 교통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출입하는 문은 성소와 속세를 나누는 일종의 경계 지점이었다.

또 종묘와 궁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복과 제사를 통해 신과 소통하는 성소였고, 이런 성소가 있는 상읍은 신성한 공간이었다. 신성한 공간인 상읍으로의 출입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길흉을 점쳐서 신적 존재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신적 존재의 허락이라는 의미에서 상읍의 경계는 종묘라는 성소를 중심으로 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읍 주변 지역까지 확대된 동심원 형태를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계의식은 지리상의 실질적인 경계라기보다 종교적 성격의 관념적인 경계였다. 마찬가지로 상읍 이외의 다른 지역도 신적 권위의 범위를 기준으로 각각의 관념적인 경계가 존재했다.

신성한 공간 상읍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에게는 향례와 빈례를 행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온 이질적 존재를 상읍 내부를 안전하게 들여서 합일[同]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화의식이었다. 조상신을 모신 종묘에서 정화의 기능을 하는 술을 함께 마시는 향례는 외부세계의 부정적인 요소를 정화하여 자신의 신(神)·인(人)공동체로 맞아들이기 위한 통과의례이며, 역시 외부세계에서 온 존재에게 술이나 제물을 바쳐 빈(賓)하는 의식 역시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요소를 정화하는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서주(西周)시기 주 왕실 쪽으로는 제후의 조근, 책명(冊命)·상사(償賜)의 수여, 제사 참여 등의 사유로 방문했고, 제후국이나 기타 지역으로는 주왕의 출행과 그 외 사람의 왕래로 구분된다. 주왕은 출정이나 의례 목적의 출행, 제후국 시찰 등으로 이동하지만, 실제 금문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주왕이 파견한 사자의 왕래이다. 주왕은 주 왕실에 신복한 제후나 주 왕실에 속하지 않은 집단 모두 사자를 파견해서 주 왕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주왕이 보낸 사자는 당시 각 정치 집단이 맞이했던 대표적인 영빈(迎賓) 대상이었다. 이러한 영빈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방문국의 종묘에서 옥을 교환하는 의례였다. 옥은 방문국의 종묘에 바치는 예물이자 자국의 조상신이 함께 방문했음을 상징하는 매

www.kci.go.kr

개물이었다.

주 왕실을 방문했을 때 공식적인 의식의 장소는 궁이었다. 궁은 정치적 핵심 공간이자 대개 조상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궁전의 기능이 복합된 건물이었다. 궁에서 주왕을 알현할 때 주왕은 조상신을 대변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개하는 매개자를 필요로 했다. 궁묘에서 진행된 공식 영빈 의식은 주왕실의 조상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로 제의(祭儀)의 성격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왕의 사자가 사행을 가서 왕의 명령을 받는 공간 역시 조상신의 위패를 모신 제후국의 궁이었다. 제후국의 궁묘 역시 조상신과 소통하는 종교적 공간이자 정치적 중심지였는데, 여기서 빈객을 맞이하는 영빈 의례를 진행하여 역시 조상신 앞에서 행하는 제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례의 성격을 가지는 영빈 의례에서 주빈에 대해 향례를 베풀고 상호 예물을 증여했다. 서주 금문의 향례의 대상은 붕우·동료·왕의 사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향례에서 제주(祭酒)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을 제거하는 정화의 의미가 있다. 즉 향례는 외부세계에서 온 부정적인 요소를 정화하여 자신들의 신·인공동체의 성소(聖所)로 외부인을 맞이하기 위한 의례절차로 일종의 통과의례였다.

III. 성소에서 세속의 공간으로 경계와 출입의 변화

본서는 전체적으로 중국 고대 공간 지배 원리가 주술적 권위에서 세속권력의 법과 제도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을 쫓아가고 있다. 바로 그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 전국시대인데, 제3장에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각각 구분해서 경계의 형태와 출입절차 등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춘추시대에도 종묘·사직이 있는 도성은 신과 소통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도성 내부의 종묘는 국의 대사를 집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권위의 출처이자 권력의 핵심공간이었다. 즉 종묘·사직의 신이 머무는 도성은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일종의 성역이었고 그 외연인 도성의 성곽은 국의 핵심공간을 선으로 구분하는 경계였다. 반면 제후국 간 변경의 읍은 그 소유가 일정하지 않아서 잦은 충돌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로 중

www.kci.go.kr

시되지는 않았다. 일단 변읍의 소유가 변하여 봉강을 다시 정할 때는 주왕·맹주의 명령이나 당사자 국가 간에 결정했다. 봉강이 결정되면 그 범위를 표시하고 관리를 두어 관리했다.

춘추시대 봉강은 일종의 국경으로 인식되는 '경(境)'으로 표기되었는데, 변읍에 속한 토지의 경계로서 자연지형 및 인공적인 도랑·제방·수목 등을 기점으로 토지의 범위를 표시한 경계이다. 이러한 봉강이 있는 경은 국(國)의 변경을 의미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했었다. 다만 국의 외연으로서 경의 내부가 공실의 단일한 통제력에 완전히 구속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공실의 경 내 지배력은 제한적이었고 경 내에 국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춘추시대에도 경은 지리적 범위를 한정하는 배타적인 경계는 아니었고 일종의 국의 지배가 미치는 범위로 인식되는 관념상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시대 이후로 국의 정치적 공간은 종교·의례적 공간과 분리되어 궁의 조정은 세속 군주의 치소로서 중심이 되었다. 지방에서는 군주가 직접 관할하는 군현지배가 등장하여, 국의 내부 공간은 정치적 중심인 국도 및 경기와 중앙에서 관할하는 군·국이 집적된 형태가 되고 외부 공간은 국과 국 간의 극지 같은 제3의 공간이 사라지고 인접국이 서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춘추시대에도 변경의 봉강에 관리를 배치하여 변경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지만, 사람들의 이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실제적인 경계로서 기능하지는 않았고 국의 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국시대는 각국의 경계가 서로 접하면서 변경에 요·정·장·새 등의 방어시설을 설치하고 상비병을 배치하여 방비했다. 이런 방어시설은 변경의 주요 거점이자 국의 외부 경계를 구성했다. 관소나 하구 역시 경계의 일부이자 출입을 하기 위한 국문에 해당했다. 또 변경에 설치된 군이나 변읍도 경계의 일부로 여겼다. 이러한 경계는 변경의 요새 지역이나 군과 같은 비교적 넓은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경선이 아니라 국경지대의 성격을 띠었다. 즉 군대가 주둔하거나 외교 회담을 하기도 하는 등 변경의 국경지대였다. 다만 전국시대 변경에 세워진 장성의 경우는 국의 외부경계로서 선의 형태를 띤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전국시대 각국은 편호(編戶) 지배를 지향하면서, 일반 민의 이동은 관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허용되었고 대개 엄격히 통제되었다. 상인이나 유세객도 일정한 검문을 거친 후 국경을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시대 국의 외연으로서 경은 사람·물자의 이동을 통제 관리하는 실제적인 국경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즉 전국시대 이후로 법제에 근거한 공간 지배가 시작되어 지리상 배타적인 정치·군사적 성격의 국경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춘추시대의 경은 공실의 주술적 지배가 미치는 범위로서 국의 출입을 구분하는 경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타국의 사신이나 군대가 경 이내 지역을 통과할 경우 가도(假道)를 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했다. 가도는 해당국을 지배하는 조상신과 사직의 신에게 통행 허가를 요청하는 일종의 통과의례에 해당했다. 춘추시대 경계를 넘나드는 왕래 절차에서 경계를 출입하는 빈객은 항상 예물을 준비해서 증여했다. 빈객은 항상 예물 즉 지(贄)를 준비하는데, 주로 옥기·속백 등이었다. 예물인 지의 품목은 제사·맹서 등 신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제물과 유사하다. 특히 옥기는 주술적 힘을 가진 영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어, 제후국의 종묘에 보관한 규·장·벽 등의 서옥은 제후의 권위만이 아니라 제후를 책명한 주왕의 명령을 내포한 신물로서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종묘에 보관한 규·벽·장 등의 옥기는 신과 교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자 종묘의 신이 빙의한다고 여겼던 보기로, 제후국 간의 방문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방문국의 신·인 공동체를 함께 방문하는 절차였고 사신이 들고 가는 예물은 상대방 종묘에 자국의 신이 방문했음을 상징하는 매개물이었다. 즉 춘추시대 빙례(聘禮)는 신·인공동체 간의 상호 만남을 위한 제의의 형식을 띠고 있었고, 따라서 열국 간의 경계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과 인간을 매개할 예물이 필요했으니, 국의 각 경계를 출입하는 절차는 신에 대한 의례를 전제로 한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었다.

고대 중국인은 자신의 영역 공간을 신의 보호를 받는 성역으로 인식했고, 경계를 출입할 때는 타계(他界)의 부정을 제거하는 통과의례가 필요했다. 이러한 다양한 통과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는 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겨난 경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외로의 출행은 신의 가호가 머무는 안전한 공간을 떠나 신의 가호가 미치지 않는 지역을 간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경계 출입 절차의 복잡한 예는 서로 간의 신의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였다고 할 수

www.kci.go.kr

있다. 그런데 춘추 후기 예적 질서의 와해는 더이상 의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를 초래했다. 춘추시대까지 신에 대한 의례라는 성격의 통과의례는 전국시대가 되면 세속군주에 대한 의례로 성격이 변했다. 따라서 제의의 성격을 띤 경계 출입절차는 좀 더 현실적인 통과절차로 성격이 바뀌었다. 각국의 경계는 요지에 관·새·정·장을 설치하여 수비하거나 장성을 축조하여 방어시설을 확충했다. 국내 지역 이동 시에도 통행증을 소지해야 관소를 통과하거나 객사에 투숙할 수 있었다. 반면 사인(士人)이나 상인 및 사신은 각국의 변경을 이동하며 출입할 수 있었다. 또 국내 주요 경계지점에서 출입 관리를 맡은 관리는 출입하는 사람과 소지한 화물을 기찰하고 반출·입하는 화물에 징세하였다. 경계를 출입하려면 화물의 적법성을 증빙하는 새절과 통행증인 전이 필요했다.

전국시대 도성의 문은 출입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었고 치안 유지를 위해 외부인의 성문 출입을 엄격히 단속했다. 향리나 성읍에서도 치안 유지를 위해 성문 출입을 관리했는데, 개폐시간을 일정하게 해서 출입자를 엄격히 관리하고 어겼을 경우 처벌했다. 전국시대 관소 배치 관리는 출입을 관리하면서, 특히 통행하는 화물에 관세를 징수했다. 관진 출입 시 소지 화물에 대한 통행세는 대체로 정량이 아니라 정률이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기는 통과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이었다.

전국시대 일반 민은 물론 부절을 지난 사자라도 관소를 통과할 때는 절차에 따라 관리의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외부인이 시에서 거래하려면 통행에 필요한 허가증 및 본인이 생산하거나 구득한 화물에 대한 증빙이 필요했다. 관리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화물을 소지하고 시문은 물론 다른 관문·성문을 출입할 수 있었다. 국경의 변관도 사신·상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왕래하는 통로이지만, 치안 유지의 목적에서 출입은 엄격히 단속되었다. 타국인이 입국할 때 변경 관리의 검문을 거쳐야 했고 때로 제재를 받고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폐관(閉關)은 외교단절을 의미하는 용어와 통했고 사신의 통행 여부도 관문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었다. 사신의 국경 출입에는 군주에게서 받은 부절이 필요했다. 혹 외교 관계에 따라 타국의 부절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전국시대 각국의 통교는 맹약의 신표로 나누어 가진 부절의 존폐로 표현되었고 부절의 폐기는 외교관계의 단절을 의미했다.

www.kci.go.kr

IV. 제국의 전일(專一)한 지배 속 열리고 닫히는 경계의 교차점

본서의 4장은 전국시대 이래 세속군주에 의한 정치적·법적·제도적 공간 지배라는 변화가 결국 진 통일 이후 진한제국 시기 전일한 황제지배하에서 어떠한 형태로 확립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춘추전국시대까지의 국과 국의 경계는 이제 단일 제국의 내부 경계로 전화되었고, 제국 전체의 외연을 획정하는 새로운 규모의 경계선이 그려지면서 그 출입이 이루어지는 변경 관소 안팎의 풍경은 이제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모습에 가까워진다고도 할 수 있다.

진한시대 제국의 직접 지배 공간으로서 영토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해당 지역의 토지와 인민을 파악하여 관할하고, 오직 군주가 정한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만 규제되었다. 현은 소속 향·리의 지리 면적과 호구 수 등을 파악하여 상부 기관에 보고했고, 중앙정부는 각 군·국의 상계 자료를 수합하여 제국의 총면적과 토지면적 및 관할 민의 수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진한시대 경기 및 군현의 범위는 담당 관리의 관할 구역에 해당했고 제후·열후의 봉지 역시 제국이 규정한 범위 내에 있었다. 따라서 제국의 내부 공간은 다중의 경계로 구획되어 있었다.

춘추 후기 이후로 군주의 직할지는 도성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진의 내사는 전국시대 진의 강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군주 직할지가 도읍 함양 주변 지역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진의 내사는 한대에도 계승되어 경기는 지방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고 중앙에 속하여 특수하게 관리되었다. 또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촌락은 향성(鄉城) 내부로 집주되어, 향성 내부에서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인 여러 개의 리(里)로 분산해서 모든 민은 그 리 내부에 거주했다. 리에 거주하는 민은 타지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때는 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했다. 향은 일정한 기점을 설정하여 그 경계를 획정하고 지도에 그 범위를 표기하여 상부에 보고했다. 마왕퇴3호묘 출토 주군도에 일정한 영역을 구분해서 표시한 경계선이 정방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경계선은 산맥 등 자연지형과 인위적인 경계 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제국 내부의 군·현·도·후국·향 등 각급 단위의 경계는 이러한 경계선으로 그려져 지도에 그 강역이 표시되었을 것이다. 담으로 둘러싸인 리에서부터 향-현·도·후국-군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범위를 나

www.kci.go.kr

타내는 경계는 각 행정단위의 관할 범위를 나타내는 행정상의 구획선으로 각각의 행정기구에 속한 관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다.

한초 경기 지역의 관소를 출입하려면 개인별로 통행증을 소지해야 했고, 이를 단속 관리함으로써 사실상 한과 제후국 간에 인적 교류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또 통행자가 소지한 금·철·말 등 특수 물자에 대해서는 관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했는데, 특히 말의 반출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당시 경기로의 출입은 내사가 관할해서,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 관소는 내사에 문의하고 내사는 중앙에 상주하여 처리했다. 한초 제후국으로 인구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고 경기 지역의 출입 관리를 엄격히 시행한 이유는 당시 황제 권력이 경기를 세력의 근거지로 삼아 동방 제후국과 대치하는 일종의 대제후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의(賈誼)는 제후국의 지세를 확정하여 제후들을 그 속에 고립시키고 교류를 단절시켜 그 힘을 약화시킨 후, 관중을 개방하여 천하가 하나로 통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한제국은 점차 말·무기 등의 관외 반출이 허용되는 등 대제후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경기의 경계를 일반 행정구역의 경계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천하를 지배하는 제국의 군주로 변모해 간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기 관소의 출입에는 통행증이 필요했고 허가받지 않은 자의 통행이나 이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한대 통행증에는 통행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동 목적과 통행증을 검사하는 과소(過所)가 명기되어 있다. 통행증의 검사는 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관·진에서 이루어졌고, 또 과소에 명기된 현·후국 등 각 행정단위에서도 단속했다. 이렇게 통행증을 통한 이동의 통제가 변경만이 아니라 내지에서도 적용되어 군현의 경계는 관리나 민 모두에게 실제적인 경계로서 기능했다.

진 통일 후 제국의 국경은 기본적으로 정·장 등의 수비시설을 갖춘 변군의 외부경계를 연결한 형태였다. 장성은 제국 서북변의 수비시설로 자연지형과 새·목책 등으로 제국의 봉강을 표시한 일종의 국경선이었다. 동해상에도 비석을 세워 진의 동문을 표시해서 동해를 제국의 동쪽 국경으로 삼았다. 한제국도 각종 수비시설이 설치된 변군의 외연을 연결한 경계가 제국의 국경에 해당했다. 변경의 수비시설 정·장·요는 변군의 관할 하에 수비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었다.

변관은 통교가 시작되면 외교 관계의 문호가 되지만, 대치 관계에 있으면 출

www.kci.go.kr

입을 통제하고 방비해야 하는 국경의 요새가 된다. 따라서 평상·비상시를 막론하고 변관·새에서는 제국의 내·외부인 모두 그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내부인이 변관을 통과할 때는 통행증이 필요했는데, 상시 출입 시 부(符)·전(傳)을 증빙으로 삼았다. 부(符)는 관리가 공무로 출입할 때 사용하고 반납하는 통행증이고 화물의 내역을 기록한 치(致)도 함께 소지했다. 변경의 관·새는 공무가 아닌 이상 출입할 수 없었고 민간의 변경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재물·황금·독화살 등 특수물자의 반출도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외국과의 사적인 상거래도 금지되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불법행위 역시 금지되었다.

국내외 변새 출입 관리는 방어시설에 복무하는 수졸들이 담당했다. 특히 흉노 및 강족과 대치하던 서북 변경은 말과 낙타의 출입까지도 일일이 기록하여 보고할 만큼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다. 사사로운 민간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경의 출입은 사행, 군대, 변경 밖 기구와 관계된 업무 등 공적인 출입이 주였다. 황제로부터 받은 부절을 소지하고 필요에 의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증명문서로 확인한 후 통행했다.

외국인의 국경 출입도 사신과 같이 공적인 목적을 지닌 경우에만 가능했다. 외국 사신이 도착하면 변군에서는 호송 관리를 보내 내지로 이동시켰다. 다만 서역에서 오는 외국인은 공식적인 사신만이 아니라 실제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온 일종의 서역상인인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경우라도 황제에게 봉물을 바친다는 명분이면 사신으로 대우해서 국경 출입을 허용했다.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주변 국가와의 대외 교역은 헌납이라는 명분하에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전국·진한시대 제왕은 이전까지 신의 권위를 대변하는 매개물이었던 서옥을 전유하고 이를 매개로 종래 신의 권위에 속했던 영역을 자신의 새로운 정치적 지배 영역으로 포섭했다. 이런 점에서 진한시대 제국의 국내외 각 경계를 통과하며 타지로 이동하기 위한 증빙으로서 필요했던 관인과 부절은 새로운 신적 권위를 가진 황권의 상징이었다.

상주 이래 춘추까지의 주술적 사유와 전통은 진한시대 국가의 제도와 의례 및 민간 풍속과 일상 의례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군의 경계까지 나가서 외부인을 맞이하거나, 출행할 때 외곽에서 길제사를 지내는 풍속은 경계에서 행하는

www.kci.go.kr

일종의 통과의례로 초기 사회의 주술적 경계 출입 방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V. 미완의 과제, 앞으로의 기대

이상 상주시대에서 진한시대까지 경계의 존재 형태와 경계 출입 절차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본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중국 고대 공간 지배의 원리가 전국시대 크게 변하면서 경계 출입의 절차와 형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聖)에서 속(俗)으로의 변화일 것이다. 사실 새삼 부언할 필요도 없이 이는 인류 고대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중국 고대문명에서 그러한 세속화의 흐름은 결정적으로 전국시대에 진행되었고 그 결정체가 진한제국이다. 다만 저자도 강조하고 있지만, 춘추시대까지의 주술적 권위와 그 매개물은 제도·의례·풍속 등으로 계승되어 여전히 남아 있었고, 특히 그 신적인 권위의 매개물로서 서옥이 황권의 상징으로서 부절·관인 등으로 전화되었음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 중국 고대 정치 권력의 지리 강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대별로 그 세력권을 확인하거나 공간 지배의 양상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진한시대에는 서북 변경의 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변군 설치와 그 방어선의 문제가 대표적인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 고대 강역 연구가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경계(境界)라는 특정점에 천착해서 출입절차와 이동하는 사람에 주목해서 상주에서 진한까지 통시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은 본서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단순히 지도에 선을 그어서 특정 정치세력의 강역을 표시하는 연구가 아니다. 정치세력의 경계가 시대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동했는지,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능했는지, 반대로 경계를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단속하고자 했는지 등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시기별로 정치 권력이 공간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렇게 지배하는 공간 너머의 다른 세계, 타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배제 혹은 접촉하려고 했는지 이해

www.kci.go.kr

하려는 시도이다. 바로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방향은 그대로 중국 고대 정치 권력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처음 언급했다시피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는, 단절과 격리의 경계 너머로 열림과 닫힘의 또 다른 변주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본서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는 책의 한계라기보다는 저자에게 앞으로의 연구로 기대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본서는 중국 고대 경계의 형태와 그 출입 절차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중국 고대 경계 너머 다른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자의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서는 공간의 특정 지점으로서 경계에 주목하여 그 안팎을 단절적으로 인식하고 그 통과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경계를 기준해서 내외의 공간이 선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역장(力場)이 미치는 범위를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선으로 그을 수 없는 중첩된 공간, 착종된 경계가 존재한다. 착종된 경계는 현도·후국·군국 등 내경(內境)이나 장성 일대 등 외경(外境) 모두에 존재하며, 중앙 권력의 구심력이 비교적 느슨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고대 국가권력에 반하는 망(亡)·망명(亡命)·유맹(流氓)·도(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유동 집단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존재가 본서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타자에 다름 아닐 것이다. 경계 너머 완전히 다른 세계의 타자가 아니라, 정(正)의 모습일 때는 국가의 충실한 신민(臣民)이지만 반(反)의 모습으로는 망(亡)·유(流)·도(盜)가 되는 이들이 경계 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탐색한다면, 경계와 그 출입에 대해서도 좀 더 입체적인 이해를 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투고일: 2021년 11월 21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30일

www.kci.go.kr

참고문헌

강상중 외. 2007.『공간 아시아를 묻는다』. 한울.

김진우. 2017. “秦漢代 奏讞文書의 被告 진술을 통해 본 기층사회의 實相.”『中國古中世史硏究』 제43집, 75-112.

이성규. 2007.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開]과 닫힘[塞].”『동아시아의 경제 문화 네트워크』, 101-180. 태학사.

_____. 2011. “前近代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開)과 막힘(塞): 10세기 이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학술원 편.『국제학술보고서』 제2집, 1-33.

謝偉傑. 2019. “漢帝國緣邊與內部的「游離群體」: 兼論秦漢帝國天下觀的想像與現實.”『東西人文』 12호, 45-65.

相田洋. 1997.『異人と市: 境界の中國古代史』. 研文出版.

www.kci.go.kr

www.kci.go.kr